

## 이조초기의 수의 (李朝初期의 壽衣)

石 宙 善

〈同德女子大學 教授〉

1968년 3월 21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령리(廣州郡 草月面 雙嶺里) 뒷산에서는 400여년 전(前) 고총(古塚)에서 미라가 된 시체(屍體)와 수의부장품(壽衣副葬品) 18점이 원형 그대로 나왔다.

이 유해는 이조(李朝) 제2대 정종(定宗)의 부마(駙馬) 박빈(朴賓)의 5대손(代孫) 며느리 안동 김씨(安東 金氏)의 12대손(代孫) 박광범(朴光範)[60세 경기도광주군장지리(京畿道廣州郡牆枝里)]씨가 갖고 있는 밀양 박씨(密陽 朴氏) 족보(族譜)에 의해 안동 김씨(安東 金氏) 죽은 해수를 406년 전으로 추정했고 날짜는 4월 20일로 되어 있다.

김씨의 외아들 박지포씨(朴芝浦氏)가 가정(嘉靖) 갑자생(甲子生)[1564]으로 되어 있어 안동 김씨(安東 金氏)의 나이를 대략 37~38세로 추정했다.

안동 김씨(安東 金氏)는 판서(判書)를 지낸 김량(金亮)을 조부(祖父)로 현감(縣監)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김안원(金安原)의 장녀(長女)로 태어났다.

성년이 된 후 정종(定宗)의 첫째 딸 함양옹주(咸陽翁主)의 부마(駙馬) 지돈녕 박빈(知敦寧 朴賓)의 5대손(代孫) 박운정(朴云禎)과 결혼하였다. 그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 박지포(朴芝浦)는 55세때 예조정랑(禮曹正郎) 좌승지(左承旨) 벼슬까지 지냈다.

### 이장(移葬)하게 된 이유(理由)

안동 김씨(安東 金氏)의 묘(墓)는 박빈(朴賓)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다가 25년 전(前) 왜정말기(倭政末期)에 11대손(代孫) 박치성씨(朴稚星氏)에 의해 3대째 묘지기를 해오던 김경숙씨(金慶淑氏)에게 3정보(町步)의 산야(山野)와 더불어 헐값에 팔렸다. 박씨의 후손들은 20여년 동안 남의 손에 넘어가 충분히 돌보지도 못하고 거의 버려두다시피 했던 안동 김씨(安東 金氏) 묘(墓)를 약 5년 전부터 문중(門中)이 의논한 끝에 김씨의 남편이 묻혀있는 양주군 개군면 상자포리(楊州郡 介軍面 上紫浦里)에 합장(合葬)하기로 결정 12대손(代孫) 광근(光根) 광진(光璣) 광범씨(光範氏)와 14대손(代孫) 용선씨(容善氏) 등 50여명의 후손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이번에 이장(移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발굴 3日만에

묘(墓)는 워낙 고총(古塚)이라 봉분은 평지보다 약간 높을 정도 퇴락되었고 지상(地上)에서 약 1미터쯤 파 내려가니 석회가 드러나기 시작하여 그날은 파낼 수가 없어 정으로 쪼아 내려가기 사흘되던 3월 21일 오후 4시에야 관(棺) 뚜껑을 열었다고 한다.

관(棺) 외곽은 약 5센티 두께의 송진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석회(石灰)와 더불어 짙은 색이 있어서 관(棺)채 들어낼 수는 없어 그냥 관(棺) 뚜껑을 일부 따고 뼈만 꺼낼 셈이었던 모양 처음 뚜껑을 따려고 할 때 석 하고 가스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관 뚜껑 위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별을 보자마자 곧 사라져 무슨 글자였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관은 백송으로 되어 있었고 관 밑에는 숯가루가 4~5센티 깔려 있으면서 관 모서리는 나비침 모양으로 사계가 물려 있었다고 한다.

400여 년이나 넘은 고총(古塚)이니 무엇이 남아 있으려니 하고 처음에는 관 뚜껑 일부 뚫린 데 손을 넣어 휘둘러 본 모양 뼈는 잡히지 아니하고 이상하게도 의복 같은 것이 손에 잡히니까 그 이튿날 다시 넓게 파 내려가 완전하게 관 뚜껑을 연 모양이다. 그래서 맨 위에 입었던 저고리는 상처를 입어 약간 떨어진 데가 있었다.

### 수의(壽衣) 실 측

이미 양주군 개군면 상자포리(楊州郡 介軍面 上紫浦里)로 옮겨진 다음날 3월 22일 서울대학 박물관장(博物館長) 김원룡 박사(金元龍 博士) 이대 박물관장(梨大 博物館長) 진홍섭(秦弘燮) 교수와 본인(本人) 세 사람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직원 안내로 현지에 나가 14대손(代孫) 박용선(朴容善)[57]씨를 만났다.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안동 김씨(安東 金氏) 유해(遺骸)를 원형대로 수의(壽衣) 입은 채 입관(入棺)된 채로 박물관에 모실 것을 후손(後孫)에게 교섭해 보았으나 문중(門中)은 물론 조상(祖上) 팔아먹었다고 할까 두려워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우리 일행이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사망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산 중턱은 많은 사람으로 뒤덮혀 있었다.

안동 김씨(安東 金氏)의 유해는 가마니에 묶어서 스리코터로 옮겨진 것이라고 하는데도 뼈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겨졌는데 우리 일행이 갔을 때는 임시 땅을 약간 파헤치고 유해는 가마니채 수의(壽衣)는 전부 벗겨서 별에 말리우고 있었다.

별에 퍼놓은 수의(壽衣)는 시체(屍體)와 400여년을 땅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색깔은 다 변색되고 치마 주름 곱쳐진데서 원 색깔을 찾아 볼 수가 있었고 변색되었어도 자주색은 가려 볼 수 있었다.

### 수의(壽衣) 종류와 모양

수의(壽衣) 종류로는 치마 둘 저고리 둘 바지 하나 버선 한 켤레 비단신 한 쌍 모두 일곱 가지였는데 우선 수의(壽衣) 중에 속옷이 없었다는 것을 새로 발견하였다.

전부 솜을 놓아 누빈 옷으로 치수를 재다 보니 김씨(金氏)의 체구가 꽤 작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청색 명주를 안팎으로 솜을 놓아 곱게 누빈 치마는 길이가 90센티 폭이 12폭 362센티나 되어 길이에 비해 상당히 넓은 폭이었다.

저고리는 자주 명주로 누빈 것인데 모양이 현대 것과는 달리 저고리 길이가 남자 저고리처럼 길면서 겹깃 모양도 지금의 안깃 같이 각(角)으로 되어 있었다.

깃 끝동 섭 회장이 짙은 자주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끝동이 넓고 소매 배래는 거의 직

선으로 되면서 도련은 당의(唐衣)와 방불하게 곡선을 갖고 있었다. 저고리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치마 길이가 그토록 짧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흰 명주를 안팎으로 누빈 바지는 과거의 너른바지 비슷하면서 밑이 없고 위가 전부 트인 지금의 단속곳 같은 모양이었다. 바지는 8센티 너비로 누벼 드문드문 주름잡아 허리도 역시 누비로 되어 있었다.

바지 치마 할 것 없이 허리는 명주로 되어 있으면서 끈만은 베 홀 끈으로 되어 있었다. 명주에 비해 베는 탄력이 있어 끈으로 매야하는 것만은 베를 사용한 것 같다.

열새쯤 되어 보이는 가는 무명 버선은 방금 숨을 놓아 뒤집은 것 같은 별로 더럽지도 않은 숨이 보글보글해 보이는 새 기분이었다. 크기 22센티 자그마한 예쁜 모양으로 반월형(半月形)에 가까운 “수늑”이 극단으로 굽은 모양이었다.

소화단(小花緞)으로 된 비단신은 주위를 창종이로 배접해서 종이로 된 바닥과 붙어서 만든 것인데 떨어진 곳 하나 없이 깨끗한 모양이었으나 색(色)은 퇴색되어 무슨 색깔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맨 위에 입었던 청색 명주 겹저고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약간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처음 유해를 파낼 때 미처 관을 못 열고 일부 따 헤친 데 손을 넣어 둘러보았을 때 손에 걸려 여기 저기 찢겨진 모양이다.

명주 겹저고리에는 깃끝동 섬 회장이 자주색 중국 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화(小花) 무늬로 성해 있어서 무늬도 색깔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 시체(屍體)에서 느끼는 모양

400여년 전(前)의 수의(壽衣)를 한 눈에 보는 흥분된 감정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전부 실측하고 나서 수의(壽衣)라고 할 수 없으리 만큼 암전하고 정교한 바느질 방법이 땅속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수의 치수를 다 재고 나서 휘장을 걷어드니 유해가 누워 있었다. 유해는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살은 다 빠지고 뼈에 가죽만 밀착되어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처음 관에서 나올 때 별을 보기 전에는 주홍색 비슷 붉으레 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았을 때는 이미 별에 변색되어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약간 누우러면서 거무칙칙한 두 발이 그대로 뒤로 빗어 넘긴 채 남아 있었다. 손가락은 비이비이 틀려 있었으나 모양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손에 비해 발은 워낙 살이 없는 곳이라 고은 형태로 남아 있었다. 미라가 되었을 망정 얼굴이 우락부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 미모의 여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젊었을 때의 이미지를 나대로 그려보는 한편 치아가 그냥 남아 있었는데 약간 앞니가 버드러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씨(金氏)는 마음이 착한 여인(女人)이었구나 고 느꼈다.

시체(屍體)의 크기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신장(身長)이 132센티 얼굴 길이가 12센티 넓이 13센티 팔이 54센티 발바닥이 18센티 코의 연골(軟骨)도 뚜렷하게 남아 있어 생전의 얼굴과 연결될 상 싶었다.

본인이 땅속에서 발굴된 계보(系譜)가 뚜렷한 수의(壽衣)를 다루어 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1963년 경기도 광주군 세촌면 암동리(京畿道 廣州郡 細村面 岩洞里)에 있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따님 청연군주(淸衍君主) 능(陵)에서 의상(衣裳) 150여 점 부장품 합쳐서

200여 점이 발굴되었다. 순조(純祖) 21년(1821)에 쓴 묘(墓)이니 약 150년 전의 일이다.

어쨌든 400여년 전의 의복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꿈만 같은 일이다. 본인이 유물을 다루어 오던 중 가장 연대(年代)가 높은 것이 340년대였다.

이번에 안동 김씨(安東 金氏)의 수의(壽衣)를 다루어 봄으로써 이조(李朝) 500년의 의복제도는 어느 정도 다 만져본 셈으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복식은 약간 자신을 갖게 되었다.

김씨의 수의가 340년 전의 의복제도와 꼭 같은 모양을 발견하고 보니 그 옛날에는 유행도 지금과 같이 빈번한 변화는 없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헌만 갖고 복식 공부란 불가능한 일로 유물이 병행함으로써 확실한 고증(考證)이 될 수 있고 올바른 복식사를 전해 줄 수 있다.

김씨(金氏)의 유해는 후세(後世)에 인연 있어 해골이나마 다시 이 세상에 와서 후배들에게 다시없는 좋은 자료를 전하고 가신 분으로 이조초기(李朝初期)의 의복제도(衣服制度)를 뚜렷하게 남기고 간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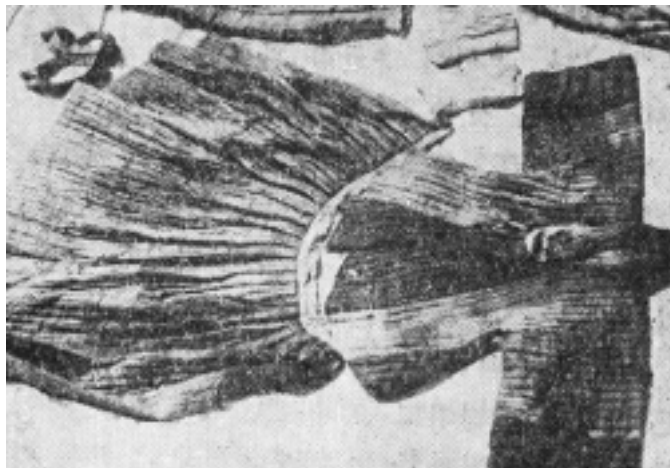
하물며 섬유를 지상(地上)에서도 보존하기 어려운 비단을 지하(地下)에서 400년 동안 곱게 간직해 주었다는 것은 의류역사(衣類歷史)에 길이 빛나는 일로 여기 안동 김씨(安東 金氏) 유해에 경의(敬意)를 표하는 동시 명복을 빌며 그의 후손들에게 행운 있기를 빈다.



미이라로 발굴된 시체



누비저고리, 치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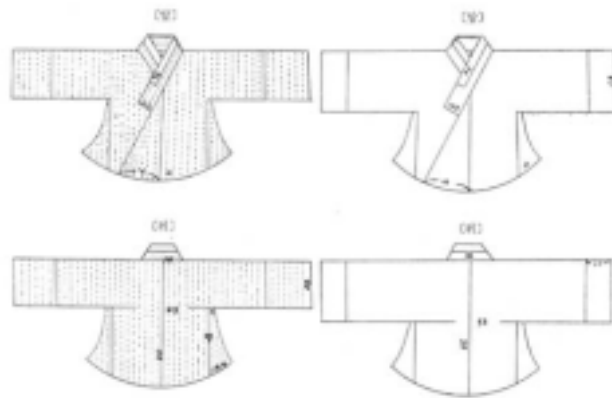
누비저고리, 치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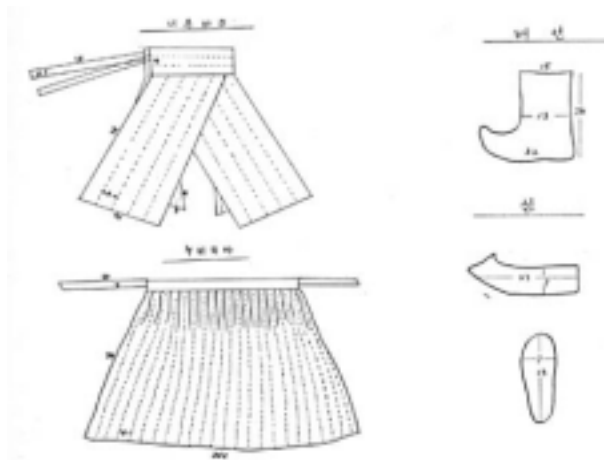
누비바지

수 의 제 도(壽衣製圖)

수의(壽衣)는 사진과 더불어 축도된 것으로서, 도면숫자의 단위는 cm이다.



누비저고리 겹희장저고리



너른바지 누비치마 버선 신

## 수 의(壽衣) 의 처 리(處 理)

수의(壽衣)는 그의 후손(後孫)으로부터 기증 받아 민속관에 보관하기로 되었다. 시체와 같이 400여년을 땅속에 같이 있었으니만큼 지방과 수분이 숨에 흠뻑 배어 있어 앞으로의 관리가 대단히 어렵다. 일단 과학적인 처리가 필요하고 되도록 수명을 길게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의복 역사에 귀중한 자료(資料)로서 길이 남기를 바란다.

## 석 침(石 枕)

유해(遺骸)의 두부(頭部)를 올려놓기 위하여 만든 석제(石製)의 벼개, 두부(頭部)를 올리기 위하여 상면(上面)에 말굽[마제(馬蹄)]형의 움덩이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이 원칙이다. 석관(石棺)의 저면(底面)에 움덩이 모양이 되어있는 것도 석침(石枕)이라 하지만 별도로 벼개형(形)의 독립(獨立)된 유물(遺物)도 있다. 독립된 석침(石枕)은 대별(大別)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전체(全體)의 평면형(平面形)도 말굽형(形)을 이루고 움덩이의 주위는 조금 높게 되어있다. 이것을 2단, 3단으로 단계상(段階狀)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또 이 단의 위에 적은 구멍을 뚫어 특수형의 부속장식(付屬裝飾)을 한 것도 있다. 석재(石材)는 활석(滑石)을 주로 사용한다. 둘째는 장방형(長方形)의 응회암(凝灰巖) 상면(上面)에 움덩이를 파있을 뿐 조질품(粗質品)이다. 전자(前者)를 거의 고분시대중기(古墳時代中期)의 형식이라면 후자(後者)는 후기(後期)까지 계속 되어있다.